

지역 소식통

정읍시,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챌린지' 홍보

정읍시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시민들이 주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을 조기에 발견해 만성질환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챌린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사업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중 2종류 이상을 측정하면 모바일 앱 '워크온' 게시판에 인증 사진을 올리게 된다.

오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을 원하는 시민은 정읍시보건소 2층 또는 내장상동 샘골보건지소 1층에서 측정할 수 있다. 신청순 500명이 완료되면 운영 종료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변산지역발전협의회 연말 성금 200만원 기탁

(사)변산지역발전협의회(회장 김인석)는 지난 23일 부안군 변산면사무소를 찾아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써 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박현선 변산면장과 김인석 변산지역발전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정기탁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변산면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변산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김인석 회장은 "변산면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조선환 변산면지역사회복지협의회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나눔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최초 귀속 결정 환영”

새만금 신규 매립지 초입지·환경생태용지, 행정구역 최종 결정

새만금 사업 신규 매립지인 '초입지'와 '환경생태용지(1단계)'가 부안의 품으로 안겼다.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열고 부안군 하서면 인근 새만금 개발사업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인 초입지와 환경생태용지(1단계) 부지의 행정구역을 부안군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초입지는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한 매립사업으로 새만금 관문인 1호 방조제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북지방환경청이 조성한 환경생태용지(1단계)는 하서면 불등마을 앞 공유수면에 있는 신규 매립지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전북개발공사의 신청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했다. 새로운 매립지가 부안군으로 지정돼야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안정적인 민자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천년 부안군민의 터전이던 바다와 갯벌 위에 조성된 새로운 매립지가 부안군에 귀속결정 되기까지 만만치 않은 험로의 연속이었다.

지역측량성과도 발급 보류와 새만금 신규 매립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까지 쉽지 않았다.

행정구역 결정 지연은 자연스레 미진한 투자유치와 관광객들의 유무형적 피해를 야기시켰다.

2차 잔여지 매립준공으로 약 100만㎡(30만평)의 너른 땅으로 거듭난 초입지는 서해안 대표 관광 및 레저용지의 도약을 위해 건전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가 필수지만 행정구역 결정이 늦어지며 투자유치 또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 조성된 환경생태용지(1단계) 부지 약 78만 5400㎡(23만 8000평)는 행정구역 결정 지연에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당장 내년 초부터 관광객을 맞이해야 하는 만큼 부지 관리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결정이 시급했다. /부안=김석진기자

특히 지난 3월 조성된 환경생태용지(1단계) 부지 약 78만 5400㎡(23만 8000평)는 행정구역 결정 지연에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당장 내년 초부터 관광객을 맞이해야 하는 만큼 부지 관리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결정이 시급했다.

특히 지난 3월 조성된 환경생태용지(1단계) 부지 약 78만 5400㎡(23만 8000평)는 행정구역 결정 지연에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당장 내년 초부터 관광객을 맞이해야 하는 만큼 부지 관리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결정이 시급했다.

당장 내년 초부터 관광객을 맞이해야 하는 만큼 부지 관리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결정이 시급했다.

당장 내년 초부터 관광객을 맞이해야 하는 만큼 부지 관리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결정이 시급했다.



동진강 환경복지협의회(대표이사 이익규)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나섰다.

깨끗한 상수원 만들기 '앞장'

동진강 환경복지협, 옥정호 추령천 수질 보전 나서

동진강 환경복지협의회(대표이사 이익규)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나섰다.

동진강 환경복지협의회는 지난 23일 정읍시 산내면 옥정호 추령천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이익규 협의회 대표이사 지역대표 6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진강 환경 살리기와 깨끗한 옥정호 상수원 만들기를 위해 추진됐다.

정읍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 주변은 그동안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미관 저해와 악취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협의회 회원들은 무단 투기 쓰레기와 농폐폐자재 수거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정화 활동을 전개하며 옥정호 수질 향상에 앞장섰다.

또 맑고 깨끗한 옥정호 상수원을 살리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 옥정호 물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 수질 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민관 합동 수질 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수원의 신뢰도 향상과 수질 검사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익규 대표이사는 "동진강과 옥정호는 우리가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수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서해안권 해양생태문화관광벨트 중심 부상

고창군, 핵심지역 10개 사업 1조 3514억원 반영

전북 고창군이 노을대교·전력에너지플러스터 등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안권과 내륙철도사업권 발전 종합계획이 국토부를 통해 최종 고시됐다.

고창군은 서해안권 발전사업으로 모두 10개 사업에 1조3514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들은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예산 지원 등으로 추진 동력이 있을 전망이다.

'서해안 관광벨트'는 고창의 노을대교를 시작으로 충남,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서해안 관광도로(선셋드라이브)를 조성해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게 된다.

또 '고창전력 에너지 4차산업플러스터 구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10월 고창전력시험센터에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 시험장'을 준공하는 등 고창군이 행정 전가너지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원면 염전부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발을 위한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도 반영돼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군은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의

원충지대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를 마련하고 서해안권 해양생태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낼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고창 문화유적공원 조성, 근대시민정신 체합학습벨트 조성사업, 서해안 고속도로(동서천-서김제-고창) 확장 등도 담겼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중국 등 급부상하는 북방아 경제권에 적극 대응하고, 서해안권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서해안권 지자체의 대·내외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환황해안 시대 개막에 고창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민이 뽑은 10대뉴스... 1위 노을대교 국가계획 반영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24일 오후 한 해 지역을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고창 10대 뉴스'는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군청 공무원 내부게시판을 활용해 투표 선정했다.

2021년 고창 10대 뉴스 선정 결과, 1위는 '30년 군민숙원 해결, 노을대교 국가계획 반영'이 차지했다. 지난 9월 말 국토교통부가 확정된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노을대교는 30년 고창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역대급 최대규모 국비사업으로 자랑스런 고창군민이 손잡고 이뤄낸 쾌

거다. 서해안관광의 랜드마크인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고창과 부안은 관광경대교라는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갖출 수 있고 주민들은 접근성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이어 2위는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유네스코 주요프로그램 석권'이 꼽혔다. 고창군은 고창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자연유산(고창 갯벌), 문화유산(고창 지석묘), 인류무형문화유산(농악 판소리)을 비롯해 유네스코 생



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역)까지 모두 보유한 진정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인정받게 됐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